

이름도둑*

문은아

소문이 돈 지 열흘 만에 한 아이가 전학을 왔다. 소문은 괴담처럼 흥흥했다. 바로 이름을 도난 당한다는 거였다. 출석부에 닭피로 점이 찍힌 사람은 자기 이름을 몽땅 잃어버린다는 등. 그믐밤에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집에 가던 아이가 자기 이름이 불려서 뒤돌아 보았다가 영영 이름을 잃어버렸다는 등. 이름을 도둑 맞으면 유령이 된다는 등. 잃어버린 지 3일 만에 자기 이름을 되찾지 못하면 영영 못 찾는다는 등. 학교마다, 버전마다 다양했다. 연쇄이름도난범, 이름쓰리꾼, 이름없는 이름꾼 등 부르는 호칭도 달랐지만 대개는 '이름도둑'이라고 불렀다.

"소문 들었냐? 어젯밤에도 옆 학교에서 이름 털린 애 나왔대."

"또!"

"진짜 순식간에 도둑 맞았대. 어떤 애가 도복 입고 태권도차 기다리는데 한 애가 옆을 쓱 지나가더란다. 갑자기 싸한 기분이 들어서 정신 차려보니까 태권도 도복띠가 감쪽같이 사라졌더라. 거기 이름 쓰여 있잖아."

"헐! 겁나 겁난다!"

"오, 소름 돋아!"

아침부터 이름도둑 이야기로 교실이 시끄러웠다.

"조용! 다들 조용!"

담임선생님이 교탁을 세 번이나 칠 때까지 말이다. 사이렌같은 고함을 듣고 아이들이 자세를 고쳐 앉았다.

"오늘 전학 온 친구를 소개하겠다. 자, 이름부터 말해 봐."

담임선생님이 아이의 등을 살짝 밀었다. 전학생의 얼굴은 희멀건하고, 옷은 바래고 낡았다. 파란 줄무늬 셔츠에 녹색 반바지라니, 깔맞춤도 모르는 촌티나는 아이였다. 꼭 흑백사진 속에서 튀어나온 것 같았다.

"요주의 인물이군."

나는 중얼거렸다.

전학생은 꾸벅 고개를 숙이며 인삿말을 마쳤다.

"저기 앉아라."

담임선생님이 내 뒷, 뒷자리를 가리켰다. 전학생이 내 옆을 지나갔다.

"재, 이름이 뭐래?"

나는 민수에게 귓속말을 속삭였다. 민수가 모르겠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이상하다. 분명 들었는데 이름이 기억나지 않았다.

1교시 수학. 나는 얼른 책을 펼쳤다. 그 일은 금방 잊어버렸다. 숙제를 안 한 게 퍼뜩 떠올랐기 때문이다.

곧, 전학생의 이름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졌다. 아이들의 관심을 몽땅 빼앗아버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수학시간이 지난 후였다.

"까악! 내 이름! 내 이름이 기억 안 나."

한 아이가 소리를 질렀다. 드디어 우리 반에도 이름을 도둑맞은 아이가 나왔다. 이름도둑에 대한 소문이 사실이 되어버린 거다. 첫 번째 피해자는, 선수민이다. 아니다. 이수현이었나? 김민교였던 것 같기도 하다. 모르겠다. 헷갈린다. 나를 포함해 반 아이들 모두 그 아이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야, 잘 생각해 봐. 어떻게 자기 이름을 까먹냐?"

민수가 잘난 체 했다.

"정말 모르겠다고! 은혁이었나? 원기? 으형. 몰라, 몰라."

"울지 말고 잘 생각해 봐. 바보야."

"그럼, 넌 내 이름 생각나냐?"

"음..... 모르겠다."

"거 봐. 난 몰라. 으형으형."

이름 도둑맞은 아이가 더 크게 울었다. 민수가 그 아이 이름이 적힌 물건들을 찾기 시작했다. 지우개에 쓰였던 이름이 감쪽같이 지워지고 없었다. 연필, 공책, 신주머니에도 없었다. 이름을 알 수 있는 흔적들이 몽땅 사라졌다. 담임선생님도 그 아이를 지목했다가 그만두었다. 아이 한 번, 출석부 한 번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출석부 이름까지 사라진 거다.

"자꾸 깜박하네. 춘곤증 때문이야."

담임선생님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아이들은 달랐다. 이름도둑한테서 자기 이름을 지켜야 했으니깐!

"애들아, 나 이름 찾았어!"

그 아이가 앞문을 벌컥 열며 소리쳤다.

"맞다, 너, 지민이지!"

민수가 맞짱구쳤다. 나도 그 아이 이름이 단박에 떠올랐다. 한지민이, 틀림없었다!

"어떻게 된 거냐? 밤 사이 네 이름을 도로 찾은 거야?"

나는 한달음에 달려가 대답을 재촉했다.

"이름도둑은 잡았어?"

민수도 뒤따라 물었다.

"몰라! 아침에 눈 떴더니 이름이 딱 떠올랐어! 써놨던 이름들도 다시 생겼어!"

지민이가 가방을 거꾸로 털었다. 공책들과 책들이 우루루 쏟아졌다. 한지민. 세 글자가 분명히 쓰인 것들이었다.

지민이 주위에 아이들이 바글거렸다. 아이들은 지민이 이름표를 신기한 듯 보았다. 지민이 물건들도 국

보급 대접을 받았다. 지민이도 외계인한테 붙잡혔다 탈출한 것만큼 대단한 아이가 되었다.

하지만 지민이의 명성은 한나절을 넘기지 못했다. 지민이가 이름을 되찾은 날, 바로 다른 아이가 이름을 도둑맞은 때문이다. 과연 두 번째 피해자도 이름을 되찾을까! 아이들은 이게 또 궁금했다. 다음 날, 궁금증은 저절로 풀렸다. 두 번째 아이는 김명수였다.

도둑맞은 이름은 하루가 지나면 다시 찾을 수 있다.

열 번째 대상자가 나올 때까지 규칙은 그대로 지켜졌다. 열흘이 지나자, 아이들은 은근히 자기 차례를 기다리게 되었다. 이름 없는 하루 보내기! 이름이 사라지면 좋은 게 많았다. 출석을 안 부르니까 땡땡이도 가능했다. 숙제검사도 패스.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이름에 '수' 들어가는 사람들 나와. 수민이, 민수, 수현이. 얼른!"

담임선생님이 시키는, 칠판에 수학공식 풀기도 그냥 넘어간다. 나는 이게 제일 부러웠다.

체육을 마치고 교실로 돌아왔다. 결상에 앉자마자 오소소 소름이 돋았다. 나는 알 수 있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온 거다! 나는 얼른 국어책을 꺼냈다. 역시 이름이 사라지고 없었다. 입꼬리가 올라갔다. 이름 없는 하루 보내기! 앞으로 펼쳐질 짜릿한 하루를 상상해 보았다. 엉덩이가 간질간질했다.

먼저 나만의 이름을 지었다. 하룻동안 불리고 싶은 이름 말이다.

"지금부터 내 이름은 김수한무다. 나도 이름 도둑맞았어. ㅋㅋ."

"와, 멋지다.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역시 민수는 센스쟁이다. 하나를 가르쳐 주면 열을 안다. 아이들이 너도 나도 수한무야, 수한무야 하고 불려댔다.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살 것처럼 신이 났다.

다음은 학원 빼먹기. 나는 책가방을 몰래 두러 집으로 갔다. 바깥채의 열린 문 틈으로 구부정한 할아버지 뒷모습이 보였다. 요즘 누가 도장을 판다고 할아버지는 종일 저러신다. 아빠랑 엄마는 회사 갔으니까, 할아버지한테만 들키지 않으면 된다. 나는 까치발로 집을 나왔다. 민수가 공터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단짝 민수랑은 학교에서 노는 게 다였다. 학교 마치면 나는 학원으로, 학원 안 다니는 민수는 집으로 갔다. 그렇지만 오늘은 다르다. 배가 고플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 우리는 공을 찼다. 문방구 앞에서 게임도 했다. 민수가 먼저 엄마한테 불러 집으로 갔다. 나도 집으로 왔다.

나는 할아버지 보란듯이 학원 가방을 철퍼덕 내려 놓았다.

"어서 오너라. 학원 다니느라 힘들지야. 근데, 네 이름이 뭐였더라. 허참, 손주 이름을 다 까먹다니....."

할아버지가 밥상을 내오며 말했다.

"괜찮아, 할아버지. 그럴 수도 있지 뭐."

나는 씩 웃으면서 밥을 먹었다. 두 그릇이나 먹었더니 졸음이 쏟아졌다. 아빠랑 엄마를 기다렸다. 열두시가 다 되어간다. 이름 없는 하루가 얼마 안 남았다. 나는 부모님 대신 할아버지한테 한 번 더 시험해 보기로 했다. 방문을 열자, 할아버지가 급히 무언가를 뒤로 감췄다.

"무, 무슨 일이냐? 가만, 네 이름이 뭐지? 이상하다, 도통 생각나질 않는구먼."

"섭할라 그러네, 할아버지. 나 몰라? 나 수한무잖아."

"그랬나? 깜박했구나, 수한무야."

"뭘데 숨겨? 나 몰래 떡 먹었구나, 할아버지. 어디 좀 봐봐."

나는 재빨리 할아버지 등 뒤로 돌아갔다. 흑백 사진이었다. 내 또래 남자애의 독사진이었다. 배경은 할아버지 도장가게였다. 바로 우리집 앞이다.

"누구야?"

"알 거 없다. 이리 내."

할아버지가 사진을 낚아채며 말했다. 나한테 꿈쩍못하는 할아버지의 화난 모습이 무서웠다. 나는 팽 토라져 내방으로 왔다. 그새 12시가 넘어버렸다. 아빠랑 엄마한테 써먹지도 못하고, 이름 없는 하루가 가버렸다.

예외는 없었다. 내 차례 전까지는.

그런데 나부터 바뀌어 버렸다. 다음날에도 도둑맞은 이름이 돌아오지 않았다. 나와,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내 이름을 모른 채로 하루가 더 지났다. 뭐, 둘째 날까지는 괜찮았다.

"별써 삼일 쟈야. 이리다 영영 이름을 잃어버리면 어떡해."

나는 슬슬 겁이 나기 시작했다.

"경찰서에 신고할까? 아니면 담임선생님한테 말해?"

"뭐라고 신고하게? 담임선생님한테는 또 뭐라고 말할 거야? 나 빼고 다 이름을 되찾았잖아. 분명 장난치는 줄 알 걸."

"그러네....."

민수가 심드렁하게 말했다. 민수랑 학원 빠지고 노는 것도 지겨워졌다. 언제까지 김수한무로 불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방법은 하나뿐이다. 내가 이름도둑을 잡는 거다. 어디 붙어 보자. 이름도둑! 명탐정 김수한무가 우주 끝까지 쫓아가 잡을 테다.

나는 빨데안경을 올렸다. 눈도 부라렸다. 범인은 가까운 데 있는 법이다. 반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살펴 보았다. 전학생이 레이다에 잡혔다. 나는 아직 그 아이 이름도 모른다.

"민수야, 재 이름이 뭐더라?"

"헛, 나도 몰라. 그러고 보니까 재 이름 한번도 못 들었어."

첫 번째 용의자를 찾았다. 전학생이다.

"너 이름 뭐냐?"

단번에 물었다.

"김준호."

전학생이 고개를 들어 바로 대답했다. 그러고는 읽던 책을 다시 보았다. 까칠하기가 하늘 뺨친다. 김준호라, 듣고 보니 그런 것도 같다. 이름이 친근하다. 민수도 맞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너 이름 도둑맞은 적 있어?"

2차 심문에 들어갔다.

"없어."

전학생이 심드렁하게 대답했다. 이름도둑이라면, 이름을 도둑맞을 일도 없을 거다. 전학생이 더욱 수상해 보였다. 나는 땡땡이의 유혹을 물리치고 수업 내내 전학생을 관찰했다. 아무도 그 아이와 놀지 않았다. 담임선생님도 그 아이한테 뭘 시키지도 않았다. 투명인간같은 아이였다. 켈 게 많은 녀석이었다. 축이 왔다. 내 엉덩이가 간질간질했다.

끝나는 종이 울렸다. 나는 민수를 끌어들었다. 명탐정한테는 명조수가 필요한 법이다. 우리는 전학생을 몰래 따라갔다. 파란 줄무늬 티셔츠에 초록색 반바지. 전학생은 늘 같은 옷차림이었다. 덕분에 복적거리는 아이들 속에서도 눈에 확 띄었다. 아이들 대부분 마을 쪽으로 난 큰길로 갔다. 전학생은 변두리 방향으로 걸었다. 머지 않아 인적이 드문 길이 나왔다. 난생 처음 가보는 곳이라 낯설었다. 비가 오려는지 먹구름까지 짙었다. 전학생의 뒷모습이 흐려졌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뒤쫓았다. 한참을 걸었다. 전학생이 골목으로 들어갔다. 우리도 따라 들어갔다. 먹구름이 더 짙어졌다. 골목이 밤처럼 어두웠다. 또 미로처럼 복잡했다.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전학생은 신출귀몰했다. 우리는 농칠세라 바짝 긴장하며 빨리 걸었다. 등에서 땀이 줄줄 났다. 어느새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녀석이 온데간데없어졌다.

"분명 여기로 왔는데....."

"에이씨, 집으로 들어갔나 봐."

우리는 멈춰 섰다. 담벼락 너머는 야산이었다. 산 둘레로 봉분들이 띄엄띄엄 보였다. 귀신처럼 사라진 녀석과 그 앞에 펼쳐진 무덤들이라니. 기분이 묘했다. 우리는 서둘러 후퇴했다.

미행 이틀 쯤에도 전학생을 놓쳤다. 바로 이곳, 막다른 골목에서다. 전학생은 분명 열 발자국 쯤 앞에서 걷고 있었는데 감쪽같이 사라졌다. 미행이 미궁 속으로 빠졌다. 점점 오기가 발동하고, 의심이 커졌다.

삼일 쯤이 되었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녀석에게, 나는 단단히 화가 나 있었다. 이번에는 대놓고 따라갈 작정이었다. 녀석은 이미 내 마음속 이름도둑이나 마찬가지였다. 내 이름을 빨리 찾아야 했다. 김수한 무라고 불리는 것도 나쁘진 않았다. 하지만 내 진짜 이름이 아니니깐, 찝찝했다. 그뿐 아니다. 명탐정의 자존심도 걸린 문제였다. 그래서 서둘러 특별한 추적장치도 준비했다. 형광물감이 든 비닐주머니에 구멍을 뚫어 녀석의 옷자락에 몰래 붙이는 거다. 우리는 녀석이 푹푹 떨어뜨리는 물감을 따라 가면 된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다.

수업이 끝났다. 민수와 함께 바닥에 떨어진 형광물감을 따라 전학생을 따라 갔다. 사방이 킁킁해지자 형광물감이 선명해졌다. 민수가 내 어깨를 톡 치며 웃었다. 제법이라는 뜻이다. ㅋㅋ. 내 어깨가 하늘까지 솟았다. 드디어 막다른 골목까지 왔다. 형광물감이 담장 너머 야산으로 이어졌다. 길도 없는 길이었다. 야산 쪽 무덤으로 난 방향이었다.

"저, 저 녀석. 정말 귀신 아냐?"

"설마 이름도둑이 평범한 놈일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겠지? 난 포기 못해. 내 이름이 걸린 문제라고!"

오늘은 기필코 이름을 찾아야 했다. 민수도 내 결심을 알고 따라와 주었다. 어둑한 산길에 푹푹 떨어져 있는 형광물감이 번쩍거렸다. 나뭇가지들이 목덜미를 낚아챌 거 같았다. 부우우. 올빼미 소리도 을씨년스러웠다. 평평거렸지만, 사실은 나도 무서웠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다. 주먹을 짝 쥐었다. 도깨비불에 홀린 것처럼, 나는 전학생을 뒤쫓았다. 달빛에 나란한 무덤들이 보였다. 작은 봉분 앞에 전학생이 앉아 있었다. 이상하게도 녀석을 보자 마음이 놓였다.

"야, 김준호!"

넵다 소리를 질렀다. 무서움이 저만치 달아났다. 녀석은 앉은 채로 대답이 없었다.

"김준호! 여기서 뭐하냐?"

내가 어깨를 톡 쳤다. 녀석이 뒤돌아 보았다. 하얗게 질린 얼굴이었다. 나도 놀랐다. 녀석 손에 이름표가 한 무더기였기 때문이다. 그걸 보자 화가 치밀었다.

"네놈이 이름도둑이구나!"

나는 넵다 전학생의 멱살을 거머쥐었다.

"이름도둑이라니?"

"어디서 발뺌이야?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

나는 이름표를 휴대폰으로 비춰 보았다. 모양만 이름표일 뿐, 아무 이름도 없었다.

"미안해. 그냥 하루만 써 보고 돌려주려고 했어. 다른 애들처럼 딱 하루만....."

녀석이 풀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이름은 돌려주지 않았잖아."

"김준호, 네 이름은 웬지 마음에 들었어. 진짜 내 이름 같았지."

"그렇다고 남의 걸 훔치면 어떡하냐! 원래 네 이름은 어찌고?"

"몰라. 내 진짜 이름이 뭔지..... 나도 정말 알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온갖 이름을 찾아 떠돌다가 너희 학교까지 온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흑흑."

녀석이 훌쩍거렸다. 이름도둑을 잡았는데 신 나지 않았다. 내 이름을 잃어버린 삼일이 떠올랐다. 좋았던 건, 하루였다. 나중에는 내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았다. 허전하고 초조했다. 그런데 녀석은 오랫동안 이름

이 없었다니, 불쌍한 것도 같았다.

"처음으로 이름을 갖고 싶었어. 네가 김준호라고 불러줬을 때,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녀석이 큰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저기, 괜찮다면 네 이름을 계속 가져도 될까?"

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잠깐, 내 마음이 흔들렸다.

"그럴 순 없어. 나도 내 이름으로 살아야지. 난 김수한무가 아니란 말이야."

하나뿐인 내 이름이다. 지우개 빌려주듯이 함부로 줄 수는 없었다.

"이름을 주는 대신 애 진짜 이름을 찾아주면 되잖아."

민수가 묘안을 내놓았다. 가끔은, 제3자가 가장 현명한 법이다. 그거다. 전학생의 진짜 이름을 찾아주면 다 해결되는 거다. 나의 명탐정 기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또 다시 엉덩이가 간질간질했다.

전학생과 나, 민수는 달이 하늘 가운데 뜰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녀석의 이름을 찾을 만한 몇 가지 단서를 알아냈다.

첫째, 전학생은 혼령이다. 그럴 줄 알았다.

둘째, 1980년 5월 어느 날 죽었다. 묘비에 그렇게만 적혀 있다.

셋째, 묘비에 또 적혀 있다. 무명씨, 이름이 없는 사람이라고.

넷째, 이름뿐 아니라 기억까지 잃어버렸다.

다섯째, 다만 기억하는 한 가지가 있다.

"그건 혼령의 지문 같은 거야. 죽기 직전에 가장 강렬했던 한 장면만 기억에 남는 거지."

"너는 뭘 기억하는데?"

"하드야."

"하드라고?"

"까만바. 팔맞나는 거."

"나도 그거 좋아해."

"어떤 아저씨는 버스를 기억해. 그 위에서 막 태극기를 흔들었대. 어떤 아줌마는 노래를 기억해. 동해물과 백두산이..... 애국가 말이야."

"너 말고도 이름 없는 혼령이 또 있어?"

"그럼. 이름을 찾아 떠도는 혼령들이 얼마나 많게. 내내 잠들어 있다가 5월이면 깨어나지. 이상도 해." 나는 휴대폰으로 묘비를 비춰 보았다. 이름 대신 무명씨라고 적혀 있었다. 오랫동안 아무도 찾지 않는 것 같았다. 이끼가 파랗게 무성했다.

"청소 좀 해라."

나는 괜히 면박을 주면서 소매로 쓱 묘비를 닦아주었다. 녀석이 씩 웃었다. 가슴이 짜르르 울렸다.

1차 조사는 여기까지로 했다. 시간이 너무 늦었다. 나는 민수 손을 잡고 서둘러 야산을 내려왔다. 전학생을 집에 데려오고 싶어지만 참았다. 녀석도 자기집은 이곳, 무덤이라고 했다.

할아버지는 도장을 파는 중이었다. '다녀왔습니다.' 했더니, 할아버지가 노한 얼굴로 획 돌아보았다.

"준호 이 녀석, 학원도 빠지고 밤 늦도록 어딜 쏘다니다 왔어? 자꾸 그러면 애비한테 이른다."

"할아버지 내 이름이 뭐라고? 다시 불러줘."

드디어 내 이름을 다시 찾았다. 이 녀석이 갑자기 왜 이러나, 하는 표정으로 할아버지가 쳐다봤다.

"에이, 한 번만 불러줘. 응?"

나는 할아버지를 간지럼 태웠다. 할아버지 화를 푸는, 나만의 필살기다.

"허허허. 고만 해라. 하마, 해. 흠흠. 준호야."

"내 이름 들으니까 좋다. 헤헤."

나처럼, 전학생도 이름을 찾았으면 좋겠다.

"근데 할아버지, 내 이름은 누가 지어줬어?"

"왜 생똥맞게 묻느냐?"

"그냥 궁금해서....."

"알 거 없다."

"그거 하나 못 가르쳐 줘? 높을 준. 부를 호. 높이 부르는 이름. 뜻도 얼마나 좋아! 내 이름 누가 지어줬어? 응?"

"글쎄 알 거 없대도. 어서 들어가 밥 먹어."

할아버지는 금세 똥한 표정이다. 그러고는 다시 도장을 파기 시작했다. 치사하다, 뭐. 나는 팽 토라져 안채로 가다 뒤돌아 보았다. 그새 할아버지는 먼 산만 바라본다. 할아버지한테도 뭔가 있어. 켈 게 넘쳐나는 하루다. 피곤했나 보다. 밥을 먹을 때마다 하품도 넘쳐나왔다.

다음날, 전학생이 학교에 오지 않았다. 담임선생님이 출석도 부르지 않았다. 신경 쓰는 아이도 없었다. 녀석은 다시 이름없는 아이가 된 거다. 이상하게 자꾸 전학생이 떠올랐다.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면서 녀석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없는 게 신경쓰였다. 급식을 먹으면서는 녀석이 배고프지 않은 지 걱정됐다.

"이따가 까만바나 사다 주자."

쉬는 시간에 민수가 먼저 말했다.

"이름 찾기도 계속 해야 되니까."

나는 아무렇지 않게 대꾸했지만, 정말은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었다. 빠져나온 콧털처럼 녀석이 자꾸만 거슬렸다.

어제처럼 무섭지는 않았다. 친구네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까만바가 녹을까봐 우리는 빨리 걸었다. 멀리 녀석의 작은 등이 보였다.

"준호야!"

내가 왜 이렇게 불렀는지 모르겠다. 핵. 녀석이 돌아봤다. 웃는 얼굴이었다.

"나도 모르게 그만....."

"히이. 좋아. 준호야, 나도 준호라고 불러줘."

"이거!"

나는 대답 대신 까만바를 내밀었다.

"우와, 까만바다!"

녀석의 얼굴이 보름달만 해졌다. 녀석이 단숨에 까만바를 한 입 베어물었다. 팔뚝이 입가에 흥건했다.

"아! 맛있어!"

까만바를 다 먹고도 전학생은 입맛을 다셨다. 먹기는 녀석이 먹었는데, 내 입안이 달고 시원했다.

"학교는 왜 빠졌어?"

민수가 기다렸다는 듯 물었다.

"이름이 없으니까, 아무도 날 불러주지 않을 거 같아서 그랬어. 그렇다고 이름을 훔칠 수도 없고."

전학생이 시무룩하게 말했다.

"그런데 까만바 덕분에 다 괜찮아졌어."

헤벌쭙 웃는 녀석을 보자 마음이 놓였다.

"안 되겠다. 빨리 이름부터 찾자."

내가 이렇게 다정한 사람이었나? 아무튼, 뭐, 명탐정의 자존심을 걸고 시작해 보자. 우리 셋은 PC방으로 갔다. 먼저 1980년도에 실종된 사람들 중에서 전학생을 찾아 보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광주에서 어마어마하고 무서운 학살이 있었다고 했다. 아마 전학생도 이때 죽어 혼령이 되었나 보다. 누가 그랬을까?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 전학생이 이름을 찾으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이름 찾기도 쉽지 않았다.

"나 고아인가 봐. 아니다. 30년이 넘었는데, 부모님이 있다고 해도 날 잊은 게 분명해."

전학생이 모니터에서 물러서며 말했다. 실종자 명단의 사진만 갖고는 어렵었다. 이름만 있는 사람이 더 많았다. 사진이 필요했다. 이름 대신 얼굴만 비교해 보면 금방 나올 것도 같았다. 밤 늦게까지, 인터넷을 살살이 뒤졌지만 헛수고였다.

'차라리 내 이름을 줘버릴까? 이름이야 또 지으면 어때!'

나는 혼자 생각했다. 하지만 금방 고개를 흔들었다. 전학생에게도 진짜 자기 이름이 필요한 거다. 나는 아이들과 헤어져 터덜터덜 집까지 걸었다.

"할아버지 방에 가서 돈보기 좀 갖고 오너라."

할아버지가 나를 힐끗 보며 말했다. 할아버지는 나한테 늘 진다. 이번만 해도 그렇다. 괜히 나한테 말 걸려고 없는 심부름을 만든 게 분명하다. 기분이 좋아졌다. 나는 할아버지 방으로 뛰어 들어갔다. 운동화 두 짝이 제 멋대로 나뒹굴었다. 어디 뒹터라. 나는 책상 위도 보고 텔레비전 뒤도 살폈다. 그러다가 그 사진을 발견했다. 문갑을 뒤지다였다. 할아버지가 얼마 전 감추던 거다. 명탐정의 축이 딱 왔다. 나는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 보았다. 한 아이가 서 있는 낡은 흑백사진이었다.

사진 속 아이는 전학생이었다.

나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다. 파란 줄무늬 셔츠에 초록색 반바지 그대로, 그 차림새였다. 분명 녀석이었다. 가슴이 벌렁거렸다. 나는 맨발로 바깥채로 뛰어갔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 사진이요, 애 알아요?"

나는 할아버지에게 사진을 들이밀었다. 할아버지 얼굴이 새파래졌다. 그때처럼 사진을 낚아채려 하시는 걸 막아섰다. 이번에는 꼭 사진 속 아이에 대해 알아내야 했다.

"나 알아요, 할아버지. 애가 누군지 알아요."

"큰아버지를 안다고? 네가 어떻게 안다는 게냐? 니 애비도 모르는 일인데 어떻게....."

할아버지가 털썩 주저앉았다. 나도 따라 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할아버지보다 더 놀란 사람은 나다. 전학생이 내 큰아버지라니!

나는 할아버지를 부축하며 야산을 올랐다. 할아버지가 자꾸 고꾸라지는 바람에 더디게 걸었다. 후레시 불빛이 내 마음처럼 어지럽게 흔들렸다. 전학생, 아니 큰아버지가 보이지 않았다. 봉분들을 한참 헤매다 묘비 앞에 다다랐다.

"준, 준호야....."

할아버지가 묘비를 쓰다듬으며 전학생, 아니 큰아버지를 불렀다. 부우부우. 올빼미가 울었다.

"하드 사먹겠다고 나갔으면 고이 돌아오지 않고. 왜 여기 누워 있느냐? 애비가 그날, 그 순간을 얼마나 많이 곱씹어 본 줄 아느냐? 내가 나갈 걸. 그깟 하드 내가 사다 줄 걸. 호영호영. 처음엔 미친 사람처럼 싸돌아 다녔다. 여기 광주에서 화순, 순천까지 이 잡듯이 뒤졌지. 그러다 생각을 바꿨다. 너를 그렇게 기다릴 수 없었던단다."

할아버지가 울음같은 혼잣말을 쏟아냈다.

"내가 애타게 찾고 있는 걸 알면 네가 얼마나 가슴 아프겠느냐? 그래서 학교 돌아와 반기듯 아무렇지 않게 맞으려고 했지. 평소처럼 봐야 네가 덜 미안하겠지. 삼년 만에 찾는 것도 집고, 애비는 도장만 찢었다. '아버지 좀 늦었죠?' 하면서 네가 문턱을 넘어 올 거 같아서 문도 못 잠그고 말이다. 흐엉흐엉."

나도 할아버지를 따라 속으로 울었다.

"이 애통한 사연을 누구한테 말 하겠느냐? 네 동생한테도 숨겼다. 네 동생이 낳은 아이한테 네 이름 '김준호'를 주었지. 우리 손자를 부를 때마다 너를 부르는 것 같았다. 다 애비가 그랬어. 애비 좋자고 모두에게 숨기고. 흐엉흐엉. 애비 탓이다. 내가 잘못했다. 준호야. 내 아들이야. 흐엉흐엉."

할아버지는 목놓아 우셨다. 내가 우는 것처럼 막 우셨다.

'준호야, 얼른 나와. 울 할아버지 그만 우시게 나와봐.'

나도 속으로 말하고 또 말했다. 그러나 끝내 녀석, 아니 큰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았다.

큰아버지의 실종신고가 사망신고로 바뀌었다. 34년 만이다. 무명씨 묘비가 뽑혔다. 대신 그 자리에 할아버지가 손수 만든 '김준호' 명패가 꽂혔다. 나도 이름을 지키고, 큰아버지도 이름을 찾았다.

"준호도 큰아버지께 한 잔 올리거라."

할아버지가 잔에 술을 따라 주었다. 맑은 젓술 위로 향의 연기가 맴돌았다. 꼭 큰아버지가 고맙다고 하는 거 같았다.

"할아버지, 이거도."

나는 까만바를 묘석 위에 올렸다.

'어때? 이름도둑! 진짜 이름 찾아서, 진짜 좋지? 이제 이름 도둑질 말고 편히 자.'

향의 연기가 벗겨놓은 까만바 위에도 맴돌았다. 전학생과 못다한 인사를 한 거 같아 좋았다. 아빠가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엄마는 돌아서서 눈물을 닦았다.

노랑나비 한 마리가 내 주위를 돌더니 하늘로 날아갔다. 그때 나는 들었다.

'준호야, 나 잊지 마. 이름 없는 혼령들을 잊지 마.'

김준호가, 김준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